

## 성명서

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
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/전화: 031-292-4911 팩스:031-292-4912

###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를 환영하며 국회는 농지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!

- 3월 29일 농식품부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‘농지관리 개선방안’을 발표했다. ▲농지취득자격 심사강화 ▲투기우려 농지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▲농지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 ▲농지관리 행정체계 구축 등이 그 내용이다. LH사태가 불러온 농지투기의 민낯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왔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농촌지도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.
-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. 정부는 지금까지 자행된 수많은 불법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, 미래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우량농지의 지속가능한 유지보전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. 또한 관련 법률안이 확정되어야 한다.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농지개혁은 그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.
- 농지개혁 실행을 위해 정부가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시킬 것을 촉구한다. 농업인단체,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 개선의 추진력을 가져갈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. 농지관리 주체인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불법행위 감시와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.
-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. 농업계를 포함한 전 국민들은 농지개혁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.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농지개혁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다. 농촌지도자회는 국회가 농지개혁 완수를 위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.

2021년 4월 5일

(사)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